

『石にひしがれた雑草』論

-광경으로서의 여자-

禹 聖 雅*

目 次

1. 서론	3. 종이조각
2. 髮考	3.1 「N」
2.1 땀새	3.2 「落付か」
2.2 切髮	4. 결론
2.3 束髮	

1. 서론

『石にひしがれた雑草』¹⁾에는 유독 「본다」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왜 보느냐? 에 따라 그 대상은 달리 보이게 마련이다. 때문에 같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달리 해석되고 표현된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보고자 하는 부분을 취사선택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²⁾

흔히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우리는 어디부터 보느냐라는 질문을 하곤 한다. 그것은 어디에 그의 혹은 그녀의 관심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해서 먼저 보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과 같을 것이다. 존 버저는 여성의 사회적 존재에 대해서 재미있는 언급을 하고 있다.

* 경북대학교 강사 일본근대문학

1) 有島武郎의 「石にひしがれた雑草」는 1918年(大正7年)4月 「太陽」에 발표되었다. 有島武郎는 광고문에, 「사랑이 정당하게 취급된 경우와 부정당하게 취급된 경우에서 오는 무서운 차이를 확인해 보려고」 썼다고 적고 있다. 이는 「石にひしがれた雑草」를 여자의 사랑이 정당하게 취급되었던 『宣言』과 다른 관점, 즉 여자의 사랑이 부정당하게 취급되는 경우를 썼다는 의미이다.

2) 「イメージWays of Seeing 視覚とメディア」ジョン・バージャー · 伊藤俊治譯 1991.4 PARCO 出版局 p.8-10

「보는 것은 말보다 먼저 온다. … 그러나, 보는 것이 말보다도 먼저 온다는 것에는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세계에서 우리들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보는 것이다…우리들은 시선을 향하는 것밖에 보고 있지 않다. 보는 것은 선택이다」

여성의 사회적 존재는 그 행위, 목소리, 의견, 표정, 복장, 선택된 환경, 취미 속에 나타나 있고, 그녀가 행하는 모든 것이 자신의 사회적 존재에 기여하게 된다. 여성의 사회적 존재는 너무나도 그 사람 개인에게 특유한 것이기 때문에, 남성은 그것을 열이나 냄새, 분위기 같은, 거의 육체적 발산물이라고 잘 믿어버린다³⁾

존 버져는 여성의 사회적 존재는 「행위, 목소리, 의견, 표정, 복장, 선택된 환경, 취미」 등에 나타나 있다고 이야기한다. 열거된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외적인 것이며, 여자를 보았을 때 어떤 것을 보느냐와도 연관이 있다. 남성들이 어떤 것을 위해 뭘 할 수 있느냐에 그 사회적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면 여성의 사회적 존재를 이런데서 찾는 것은 분명 남성이다. 그리고 남성은 여성의 「행위, 목소리, 의견, 표정, 복장, 선택된 환경, 취미」 등을 열이나 냄새, 분위기 같은 발산물로 여기며 음미한다고 한다. 남성의 능력 같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이미지를 남성에게서 찾으려한다고 한다면, 여성에게서는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걸 모습에서 그녀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대로 여성이 남성의 의해서 보여지고 남성에 의해 평가되어 왔던 역사, 그 대상으로서의 역사 속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자들이 그것을 열이나 냄새, 분위기 같은 발산물로 여기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石にひしがれた雑草」에는 보는 남자 A가 나온다. 그리고 보여지는 여자 M子가 나온다. M子는 A에 의해서 보여짐으로 해석되고, 평가된다. A 때문에 M子의 삶은 고되지만, A의 M子 보기는 쉬지 않고 계속된다. 본고에서는 A에 의해 보여지는 M子의 모습을 살펴보고 A에 의해 어떻게 보여지고 해석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실체가 아닌 광경으로서의 여자의 모습이다.

2. 髮考

존 버져가 여자의 사회적 존재를 말할 때 열거한 것들은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와 관련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A도 M子의 태도, 목소리, 표정 복장등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石にひしがれた雑草」에는 M子의 머리카락에 관한 묘사가 두드러지는 데, 이것은 A가 바라보는 M子의 모습 중 하나이다. 그럼, 머리카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A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의의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3) 「イメージ Ways of Seeing 視覚とメディア」ジョン・バージャー・伊藤俊治譯, 1991.4 PARCO出版局 p.56 「남성의 사회적 존재는, 어떤 것에, 또한 어떤 것을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가를 나타내는 것이다...반대로 여성의 사회적 존재는 그녀의 자기자신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고,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 행해질 수 있는가, 혹은 행해질 수 없는 가를 규정한다」

머리카락은 신체의 일부이며 생명을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난다. 그러면서도 하룻밤새 백발이 되어버릴 정도로 정신과 연관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 머리끝 한올도 인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머리카락은 때로 그 사람을 대신하는 또는 동일한 존재, 분신쯤으로 여겨져오기도 했다. 성경에는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는 나실인 삼손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고 그 머리카락을 자른 순간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으로 돌아와 버린다. 그리스신화에도 헤라클레스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머리카락이 남성에게 있어서 힘을 상징했다면 여자에게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일컬어져왔다. 일본에서는 특히 헤이안 시대 이후 길게 늘어뜨린 머리가 여성의 미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길이, 무게, 색, 굵기는 물론이고, 냄새, 윤기, 감촉 등 그 묘사는 이루 말할 수 없다.

A는 M子를 처음 가루타모임에서 만난다. 그는 M子에게 첫눈에 끌리는데 그녀의 머리카락이 그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다.

2.1 냄새

A는 먼저 M子의 머리카락냄새를 맡는다. 모든 사물에는 냄새가 있다. 사람에게는 사람 냄새, 동물에게는 동물냄새, 좋은 냄새를 향기라고 하고, 나쁜 냄새를 악취라고 한다. 그 냄새로 사물을 식별할 수 있다. M子의 머리카락은 향기로운 냄새가 아닌 악취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지독한 반칙은듯한 강렬한 냄새를 풍긴다.

코끝에는 그 악마적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니혼마게의 반칙은 듯한 강렬한 냄새가 숨이 막힐만큼 감돌고 있었다.(p.4)

가루타놀이를 하다 물을 마시러 간 M子가 시간이 많이 지나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를 궁금하게 여긴 사람들은 사정을 알아보러 A를 보낸다. 그곳은 닫혀있고 캄캄한 부엌이라는 좁은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반칙은 듯한 강렬한 머리냄새를 맡는다. A는 그것을 악마적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냄새라고 느낀다.⁴⁾ 그러한 냄새에 익숙해있는 일본인에게 있어 그것은 그리운 냄새, 또는 좋은 냄새일 수도 있겠지만 A는 반칙은 듯한 냄새라고 인정하면서도 사람을 유혹하는 냄새라고 느끼고 있다.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사람을 유혹하고 있다.

4) 「髮の社會史」 飯島伸子、日本評論社、1986 p.78

일본 특유의 머리에 바르는 머릿기름의 냄새를 처음 맡는 외국인이라면 정말이지 역겨웠을 것이다. 메이지시대에 일본에 건너온 외국인들은 된장냄새와 함께 머릿기름 냄새에 높은 코를 막았다고 한다. M子의 머리에서도 이러한 머릿기름냄새가 나고 있었을 것이다.

냄새에 이끌려 먼 여행을 계속하는 소설에 『설국』이 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에서 시마무라는 고마코의 냄새를 그의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련히 먼 길을 찾아가고 있다. 냄새는 시마무라의 여행의 동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냄새를 통해 시마무라가 설국을 다시 찾게 하는 점에서 유혹의 냄새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 다야마 가타이의 『이불』에도 냄새가 있다. 이불에서 도키오는 여제자가 떠난 2층방에서 여제자의 이불에 남아있는 그녀의 체취를 맡으며 성욕과 비애와 절망을 느낀다. 『이불』에서의 냄새는 사건전개와는 별상관이 없지만 냄새를 통해 도키오가 느끼는 성욕과 비애와 절망이 말해주듯이 그의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石にひしがれた雑草」는 어떤가? 『설국』과 『이불』에서의 냄새는 체취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악취는 아닌 것 같다 A는 M子의 반칙은 듯한 머리카락냄새에 유혹을 느끼고 있다. 이 유혹은 A와 M子의 첫 만남에서 느낀 지울 수 없는 냄새였고, A를 M子에게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같은 것이다. 즉 이 냄새는 A를 M子에게로 이끈 가장 강력한 도구였다.

A는 그 공간을 떠도는 지독한 머리냄새를 맡았다. 그 냄새는 M子가 줄에 걸린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A에게 머리카락을 잡아달라고 한 순간, 그 순간을 통해 손으로, 마음으로 옮겨가 오랫동안 그를 자극했던 것이다.

M子를 주시한 채로, 나는 흥분으로 땀에 젖은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는 듯한 시늉을 하면서, 손바닥에 남은 앞머리의 향을 맡았다. 그리고 소중하게 손을 짝 쥐고 또 팔짱을 끼었다.(p.7)

나는 집에 돌아오자 곧 방에 들어가서, 땀으로 축축해진 손바닥을, 갓 뺀 손수건으로 정성 들여 닦았다. 그 손수건에 옮겨진 M子의 앞머리 냄새는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나의 책상 서랍속에서 진동하고 있었다. 그 밤부터 나는 격한 사랑의 열병에 걸려 버렸던 것이다.(p.9)

첫 번째 예문은 부엌에서 돌아와 다시 가루타놀이에 열중하는 M子를 바라보는 A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M子를 보면서 흥분하며 손에 묻은 머리카락냄새를 맡는 A의 모습. 그리고 뭔가 소중한 것이라도 품은 듯 자기 가슴께로 가져와 품어보는 A의 모습은 냄새에서 M子의 모습을 찾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문은 집에 돌아온 A의 모습이다. 눅눅해진 손을 막 씻은 손수건으로 닦아내고 그 냄새가 옮겨간 손수건은 서랍속에서 오랫동안 M子의 머리카락냄새를 품고 있었다. 머리카락냄새로 가득 찬 그 공간에서 그는 격한 사랑의 열병에 걸려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냄새가 일으킨 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좋은 향기에 사람들은 끌리기 마련이다. 벌은 아름다운 꽃향기에 이끌려 꽃을 찾고, 좋은 냄새는 다른 이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다른 이들을 자기에게로 이끈다. 악취가 나면 누구나 피해가듯이 역겨운 썩은 냄새는 모두가 회피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A는 M子에게서 썩은 듯한 냄새를 맡고 그것이 그를 자극하고 있고 그 때문에 사랑의 열병에 걸리고 있다.

2.2 切髮

모던걸이 유행하기 전, 전통과 새로움 사이에 갈등하던 시대, 일본머리와 속발이 같이 공존했던 시대⁵⁾. 과거에는 머리가 여자의 생명이고, 여자인 증거가 되는 것으로 여자의 금지이기도 했다. 따라서 여자의 상징이라할 만한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은 극한 상황에 놓여져 있거나 비극적인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출가할 때나 정절을 지키고자 할 때 결의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머리를 자르곤 했다.

그런데 「石にひしがれた雑草」에서 A와의 첫 대면에서 M子가 자신의 머리를 자르고 있다.

원손으로 적당히 앞머리 일부분을 잡아 말면서, 가차없이 싹둑 그것을 잘라버렸다. 새까만 머리카락이 한응큼 잘려져, 새하얀 이마에 탐스럽게 덮였다. 말릴 틈도 없었다. 나는 망연히 그 요염하게 아름다운 난폭함을 바라볼 뿐이었다.(p.5)

일본식 머리를 한 여인이 그것도 초면인 남자앞에서 앞머리를 자른다는 것, 그것은 당시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다. 「요염하게 아름다운 난폭함」인 것이다. 그것이 앞머리였다고는 해도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신체의 일부이며, 자신의 대체물이라할 만한 것을 제거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여성들이 일본식 머리가 아닌 속발을 하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단발을 하게 된 것은 쇼와 2~3년경이다. 그러한 여성을 모던걸이라 하고 그것은 만주사변때까지 유행하게 되었다. 「石にひしがれた雑草」가 메이지후반이라는 시대배경을 생각했을 때 M子의 행동은 파격적인 것이다. 「모던·걸의 트레이드 마크는 단발에 있었다. 뒤쪽을 다 자르고 앞머리는 내린 소위 단발머리이다 따라서 모던·걸의 “모던”은 “毛斷”이라고 말해졌을 정도다」⁶⁾ 앞머리를 잘라 내린 M子에게 「モダン(毛斷)」걸이라고 해도 어색하지는 않다.

5) 岩波廣辭苑 第五版、1998.11

속발(東髮): 메이지, 다이쇼의 여성의 대표적인 서양풍 머리형. 메이지18年(1885)에 婦人東髮會가 발족되어 확산되었는데 간편하고 위생적이어서 유행했다. 揚げ卷、下げ卷、イギリス卷、マガレイト、庇髮、耳隠し、二百三高地、七三、オールバック、S卷 등, 여러종류의 머리형이 있었다

6) 「モダン・ガール 時代のアンチ・テーゼ」尾崎秀樹、國文學 解釋と教材の研究 日本のおんな—その内と外、學灯社、昭和53.3 p.56

연기를 할 필요가 없어진 M子는 이마에 앞머리가 흘러내리는 것을 쓸어 넘기려고 하지 않았다. 육감적인 정도로 우울한 이마에 흘러내린 한웅큼의 머리카락은 그녀의 매력을 자연스레 더했다. 몸가짐을 흐뜨린 방자한 모습이 거기에 암시되고 있었다.(p.8)

앞머리를 잘라버린 M子의 모습은 그녀의 매력을 자연스레 더하게 했고 매무새를 무너뜨린 방자한 모습이 그 머리카락이 잘려진 이마위에 암시되고 있었다. 그 순식간에 일어난 M子의 동작을 본 A는 굉장한 충격에 휩싸인다. 가지런히 빗겨져서 올려진 니혼마게머리가 흐트러졌다. 당시만 해도 머리가 흐트러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숙치 못한 여자의 이미지이다. 이렇듯 아무렇지 않게 A가 가장 끌렸던 흑발을 과감히 무너뜨린 그녀를 통해 A는 자신의 마음이 흐트러져버렸다. 여기서 이미 A는 M子의 매력에서 헤어 나올 수 없게 되었고 그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입을 다문 채, 많은 사람의 뒤쪽에 우두커니 서서 팔짱을 끼고 두 사람의 승부를 보고 있었다. 사실은 두 사람을 보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승부를 보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M子를 뚫어질 정도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잘라버린 앞머리가 자칫하면 이마에 떨어지려는 것을 왼손으로 누르면서, 매우 침착하게 싸우고 있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고 있는 나의 눈에는, 목덜미가 아름다운, 살이 오른 새하얀 뒷목과, 구부러졌기 때문에 목덜미가 나오게 입은 것처럼 되어 강한 자극을 주는 장식용 깃과, 높고 크게 맨 다이코 오비가, 흔들리거나 나부끼면서 반짝반짝 눈부시게 비쳤다. (p.6)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벗어나서 다시 가루타놀이 가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돌아온 A는 M子의 승부장면을 지켜보게 된다. 그런데 A는 승부를 보고 있지 않고 M子를 응시하고 있었다. M子가 잘라버린 앞머리가 이마에 떨어지려하는 것을 누르며 안정된 모습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 그의 눈은 보고 있다. 목덜미가 아름다운, 약간 살이 오른 새하얀 뒷목, 강한 자극을 주는 덧깃, 높고 큰 등에 맨 다이코 오비까지.

그리고는 생각한다. 도대체 누가 이 여자를 차지할 것인가? 「그 머리를, 그 뒷목을, 저 여자에게 어울리는 옷을,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맵시있는 옷차림을」. M子로 대변되어지는 것들은, 머리카락이며, 뒷목이며, 그리고 옷이며, 그 옷을 맵시있게 입는 M子의 옷차림이다. A는 그것들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한다

그 눈의 생기넘치는 빛남, 평범한데도 커 보이는 표정이 풍부한 눈의! 떠들썩한 가운데 자네는 뭔가 M子에게 항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았다. M子는 자기편이 되어준 사람들에게 호소하듯이, 여기저기 눈길을 주면서 변명하고 있었다. 나는 그 눈길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 승리를 당연히 기원했던 내가, M子의 눈길을 받는 것은 당연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내 존재를 무시한 듯이 행동했다. 나의 눈은 빛났지만, 그녀의 눈은 결국

내게는 빛나지 않았다.(p.7)

가루타놀이를 잘 하는 M子是 결국 이긴다 M子是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기된 표정으로 유쾌하게 웃었다. 하지만 가토가 M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그녀는 자신을 응원해준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눈길을 보내며 동의를 구하였다. 그녀를 내내 바라보고 있었던 A는 비록 동의를 구하는 눈길이기는 하나 M子が 자기에게도 아주 잠깐이라도 눈길을 주기를 바라지만, 그녀는 의도적인지 정말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인지 A를 보지 않는다. 이것을 A는 그녀가 자신을 무시한 것이라 생각한다. 「나의 눈은 빛났지만 그녀의 눈은 결국 내게는 빛나지 않았다」. M子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A, 그러나 M子の 눈은 그에게 향하지 않았다 이것은 앞으로의 사건전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A는 항상 보고 있고 M子是 보여지고 있다.

A에게 M子和 M子の 머리카락, 뒷목, 옷, 옷차림은 동일한 것이다. 존 버저가 여성의 사회적 존재는 행위, 목소리, 의견, 표정, 복장, 선택된 환경, 취미등에 나타난다고 했던 것처럼 A는 그러한 것에서 M子の 존재의미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머리를, 그 뒷목을, 저 여자에게 어울리는 옷을,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맵시있는 옷차림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것을 못견뎌한다.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M子때문에 이 불안과 질투는 A를 괴롭히고 있다.

2.3 束髮

3년간의 외유후, A는 M子를 다시 만난다. 그들의 만남을 암시라도 하듯이,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눈앞에 작게 열린 셀룰로이드를 통한 전망도 비 때문에 시상을 어지럽히고, 보는 것이 모두 일그러져 보이거나 비에 젖어보였다. 마치 눈물을 가득 머금은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 같았다.(p.25)

날씨가 개어있지 않았다. 개기는커녕 비가 오고 있어서 비 때문에 시야가 흐려진 날이었고, 그날이 두 사람의 삼년만의 해후의 날이었다. 보는 것 모두 일그러져 보이고 눈물이 어린 듯이 흐리게 보였다. 그것은 정말이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채로 보는 것과 같았다 M子를 바라보는 A의 시선도 비가 어지럽히고 있었다. 그래서 A가 보는 M子の 모습도 왜곡되어 보일 지도 모른다. A는 3년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자네의 취미일 것이다. M子는 메이지 초년경의 속발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가늘고 검은 리본을 꽂고 있었다. 그것이 그 머리형에 부조화스럽게 보이지 않고, 그 밤의 정경에 훌륭하게 잘 어울렸다. M子는 그런 일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천재라고 해도 좋다.(p.33)

3년만에 M子의 헤어스타일이 바뀌어있었다. 그녀는 메이지초의 속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삼년전에 니혼마케를 하고 있던 M子가 지금은 속발을 하고 있다. A는 그것을 제일 먼저 알아챈다. 그리고 M子는 가늘고 검은 리본을 달고 있다. 그리고 처음 M子를 봤을 때와 같이 그러한 꾸밈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조화롭게 잘 어울렸기 때문에 A는 M子는 과연 이런 일에 천재라고 감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M子가 그렇게 머리스타일을 바꾼 것은 가토의 취향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니혼마케에서 속발로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니혼마케는 전통적인 일본여성의 머리모양이다. 비록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앞머리를 싹둑 잘라버린 M子이긴 하지만, 이제는 아예 속발로 바꾼 것이다. 니혼마케에 비해 속발은 명치시대에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유행하게 된 여성들의 머리모양이다. 「石にひしがれた雑草」에는 따로 시대가 명시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작품속의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명확히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속발을 시도하고 리본을 달고 있는 M子의 머리모양으로 추정해보았을 때 적어도 리본이 처음 만들어졌던 메이지 27년이후, 유행하기 시작한 30년대후반⁷⁾이라 여겨진다. 여기에서 메이지기에 머리를 앞머리를 과감히 잘라버린 M子의 행동은 더욱 파격적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3년전이나 3년후나 A의 시선이 가장 먼저 머무는 곳은 M子의 머리부분이라는 것이고, 그녀의 과감하고 앞선 행동들은 그녀의 머리카락변천에 의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마에가미에서 속발로 바뀐 M子를 본 A는 이미 M子가 3년전의 M子가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3. 紙切れ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 A는 그녀를 실물이 아닌 광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해석은 여자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A자신이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가 바라본 것은 M子의 머리카락만이 아니다. 머리카락이 그녀의 외모를 대변하고 그에

7) 図説 幕末明治流行事典、湯本豪一、柏書房,1998 p.120

일본에서 리본의 효시는 메이지27년 岩橋謹次郎가 東京 谷中の 初音町에 리본제조소를 설립한 것에서 시작된다. 岩橋가 리본을 만드는데 성공하고 나서 10년정도 지나 리본은 급속도로 유행하기 시작한다

게 그녀의 변화를 알게 해주었다면 A는 그녀의 속마음을 읽어내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만약 그 때 자네가 방해하고 있지 않았다면, 내 마음이 눈을 지배하는 대신, 눈이 마음을 지배했음에 틀림없다. 어느 정도이건, 자네가 M子와 접촉했다고 생각하자, 내 눈에 비치는 M子의 모습은 아름답고 고운 핑이같이 보였다. 그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서는 힘껏 치는 외에 달리 길이 없는 것이다. (p.27)

「내 마음이 눈을 지배하는 대신에, 눈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는 M子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바라보는 M子의 모습, A에게 비쳐진 M子의 모습이 그대로 A를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A는 M子뿐만 아니라 M子가 가토를 바라보는 순간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다. 「말을 잘하는 그 눈으로 자네의 눈에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것 또한 A가 바라본 광경이다. 해석은 언제나 A가 하고 있다. A의 눈에 바라보이는 모든 것이 A에 의해 재해석되어 읽혀지고 그것은 M子에게는 일종의 올라미와 같다.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내 눈에서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 것이 좋다. 신이 두 사람을 놓쳐 버려도 나는 두 사람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A가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A의 탐색은 일본으로 귀국한 후 더욱 본격적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전까지는 M子의 모습이 사진처럼 찍혔다면 이제는 그 사진이 다시 편집되어 사건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두개의 종이조각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

3.1 「N」

첫 번째 사건은 두 사람이 가루타모임에서 처음 만나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났다. 우연히도 M子의 집이 자신의 옆집인 것을 안 A는 그날부터 M子를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마당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그 날도 마당을 서성거리고 있자 M子의 창문이라고 여겨지는 2층에서 뭔가가 A가 서있는 마당쪽으로 날아왔다. 가만히 주워보니 그것은 「N」이라고만 씌어있는 종이조각이었다. 그것은 분명 옆집을 향해 의도적으로 날린 것이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추가 달려있어서 옆집담을 넘어 날아갈 수 있게 해 놓았던 것이다. A는 자신의 애타는 마음에 대한 M子의 대답이 'No'는 아닐까 고민하고 당황스러워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하찮은 일 하나가 생사의 문제보다도 크게 여겨진다. 그 밤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라고 A는 회상하고 있다.

A의 초조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다음날 A가 다시 마당을 산책할 때 또 추가 달

린 종이가 떨어져있음을 발견한다. 그 종이쪽지에는 「O」라고 적혀있었다. 정말이지 자기가 생각하기조차 두려워했던 “NO”라는 대답인가하고 A는 절망감에 휩싸이기도 한다. 「내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동정을 M子は 이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A자신이 줄곧 M子を 바라보았는데 M子は 자기가 모르는 훨씬 이전부터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여기고 있다. M子を 바라보는 자신의 눈은 빛났지만 자기를 향한 M子の 눈은 빛나지 않았다고 패배감을 느끼던 A였다. 이는 A로 하여금 자신의 눈을 무시하고 눈길한번 주지 않던 M子が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여기게 하는 이유가 된다.

그날 밤 그는 M子を 향한 뜨거운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쓴다. 그러나 그 다음날 편지를 전하기도 전에 다시 주운 종이조각에는 전혀 의외의 글자가 적혀있었다. 그래서 날마다 한 장 한 장 종이조각을 모으며 점점 문장이 되어간다는 것을 알게 된 A는 날마다 마당에 나와서 어떤 문장이 되어갈까 맞추어가며 M子の 마음을 읽어내려고 애쓴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그것은 M이가 A에게 보내는 데이트신청서(「COME TO 澁谷 STATION THIS NOON」)임을 알게 되었다. A는 뿔 듯이 기쁘고 행복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A는 M子を 새로이 인식하게 한다. 물론 그 당시에는 기쁘기만 했지만 그것은 M子の 행동이 종이조각맞추듯이 언제나 A에게는 이리저리 맞춰보고서야 알게 되고 파악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M子の 행동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M子は 장난으로 사랑의 유희쯤으로 이렇게 종이조각을 던지면 사랑을 고백하는 지도 모른다. 하지만 A는 그 순간 안절부절하며 그녀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했다. 그리고 그녀의 의도를 읽어냈을 때 수수께끼를 푼 듯이 안도의 한숨과 기쁨을 만끽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A는 나중에 M이가 의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다고 여기게 된다

M子라는 여자는 이런 일을 하는 여자인 것이다. 거꾸로 가지고 간 것도 M子답지만, NO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고, 나중에 흥분을 더하게 하려는 서투른 익살은 더욱 M子다. 자네는, 그것은 나의 추측이고 M이가 계획한 일이 아니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네 마음이다. 단 자네는 M이에 관해서는 나만큼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것만은 말해두려다. (p.14)

이것은 그 당시 사건에 대한 A의 회상이다. 그 당시에는 M子の 종이조각들이 데이트신청이었다는데 대한 기쁨뿐이었지만, 지금은 냉정히 그 사건을 돌아보고 A를 유혹하기 위한 M子の 계략으로 여기고 있다. M이가 얼마나 교묘하게 계획적으로 시도했는지를 말하고 있다.

3.2 「落付か」

이러한 종이조각사건은 또 한번 일어나게 되고 A와 M子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사건은 어느 날 A가 화장실에서 주운 종이조각들로 인해서였다. A는 탈의실에서 잠옷을 벗으려고 하다, 깨끗이 청소가 된 모자이크바닥위에 흩어져있는 종이조각들을 우연히 발견한다. 평소라면 무심히 지나쳤을 테지만 그날은 12월 24일의 다음날인 12월 25일이었고, 24일은 A가 가토와 M子의 만남을 목격한 날이었기 때문에 A의 「마음 깊은 곳에는 희미하지만 추한 질투의 악마가 엿보고」있었다. A는 그것을 주워들었다. 겉에는 「落付か」라는 세글자만 보이고, 안에는 처음 한 글자 정도가 찢겨져 「郎よ」라는 두 글자만이 분명히 보였다.

A는 梅治郎라는 가토의 이름을 떠올리며 괴로워한다. 「사람을 도적이라고 불러라, 그 사람은 도적이 될 것이다」라고 한 칼 라일의 말을 떠올리며, 「落付か」의 의미를 상상한다.

「정신차리고 침착하지 않으면 들킵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당신을 에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망쳐 행방을 감추어 OO에 살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A를 안정시킨 당신의 숨씨를 나는 대단하게 생각합니다」...악마... 그러나 바보같이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마라. 바보같으니! 나는 이런 의심많은, 비열한 남자라고는 나도 생각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꿈이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우연이라면, 나는 이 이상없는 멍청이가 되는 것이다. 종이 한 조각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내답지 못한 남자가 있을까.....종이조각이 아닌 M子다. 그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아! 할 수 있다면 나는 가만히 눈을 감고 있고 싶다. (p.44)

한 조각의 종이를 가지고 한 여자의 마음을 퍼즐맞추듯이 이리 저리 끼워보고 있다. 종이조각은 A에게 단순한 종이조각이 아니라 M子자체였기 때문이다. 여자의 마음을 알기 위해 그 조각을 조합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종이조각으로 잘라서 날려보냈던 M子였기 때문에 A는 다시 종이조각을 통해 그녀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한다.

A는 의심끝에 가토에게 편지를 보내 그의 필적을 알아보려한다. 이 종이조각의 주인이 가토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정작 그의 편지를 받았을 때 가토의 필적과 종이조각의 필적이 다른 것도 같고 비슷한 것도 같아 혼란스러워한다. 하지만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그 의심을 또 의심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모르게 되어버리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가토와 M子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며 두 사람을 살펴보기 시작한다. 친절을 가장한 그의 행동에 M子는 처음에 의아해하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하지만, A는 셋이 있는 자리에서 두 사람만을 남기고 자리를 뜬 후, 다른 방에서 두 사람 사이에 교환되는 「눈과 눈과의 대화」 「손가락과 손가락의 속삭임」을 상상하며 자신의 질투에 기름을 붓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사치스런 생활, 정신적인 양분의 고갈, 온갖 음탕한 차림, 허위의 상습, 그러한 것이 합세해서 그 당시의 M子를 훌륭한 창부로 만들어주었다. 이상하게 젊음을 잃지 않는 29세의 풍만한 육체는, 들끓는 음탕한 검은 피를, 약간 푸르스름할 정도로 하얗고 매끄러운 피부로 터질 듯이 감싸고 있었다. 살이 찢다고 해서 는 맞지 않다. 아주 튼실한 것이다. 루벤스의 여자가 아닌, 다네를 그린 코렛지오의 여자다. 육체에도 머리의 움직임에도 어딘가 남성적인 추접스럽지 않은 시원시원한 면을 가지면서, 정에 건디지 못 할 듯한 권태가 몸 전체에서 퍼져 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늦봄의 햇살에 발효한 흑목단꽃같았다.(p.59)

질투에 기름을 붓고 「질투의 오르가즘」을 느끼며 A는 복수를 시작한다. 두 사람의 뒤를 캐기 위해 밀정을 보내는 등 그의 의심과 집착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기만 한다. 결국 A가 바라보는 M子는 한쪽의 그림속의 여자의 모습이 되었다. 그것은 「다네를 그린 코렛지오의 여자」라고 하고 있다. A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M子의 모습이 창부적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다름아닌 A가 만들어낸 모습이다.

종이조각을 통해 M子라는 여자의 존재를 파악하려했던 A는 어느 순간 자기 판단에 의해 M子를 그림속 여자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M子는 그림속 창부의 모습으로 처절한 복수를 당하는 것이다.

M子는 자살까지 시도하지만 A는 죽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고, 거의 미쳐버린 M子를 가토에게 보내며 어딘가에서 두 사람을 보고 있겠다며 글을 맺고 있다.

4. 결론

「우리들은 시선을 향하는 것밖에 못 본다. 보는 것은 선택이다」라고 존 버저는 말했다. A의 시선은 항상 M子라는 여자를 향해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 그녀의 옷매무새, 그녀의 행동, 그녀의 취미, 그녀의 표정, 그녀의 목소리 등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그의 시선은 고정되어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M子의 사회적 존재 의미를 찾아내고 있었다.

A가 바라보는 M子의 모든 모습은 A를 유혹하는 강력한 무기같은 것이었고, A는 빠져나올 수 없음을 느낀다. 하지만 그렇게 강렬하게 자신을 이끌었던 M子의 배신은 처절한 복수를 부르고 있다. 그것은 결국 M子를 그림속의 여자로 만들어버렸다. A의 질투와 상상에 의해 그리고 교묘한 계략에 의해 M子는 창부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버려지게 된다. 이것은 의사소통없는 광경으로서 여자를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첫 서두에서 A는 「아무 목적이 없어져 버리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 상당히 노골적으로 훤히 비쳐보인다. 악마의 눈이 빛나는 것도 다분히 그 때문일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목적없이 빛나는 「악마의 눈」, 그것은 M子를 바라보는 A의 시선이였다. 감정이 섞이

지 않은 대상으로서, 광경으로서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인 것이다.

【參考文獻】

岩波廣辭苑 第五版(1998)

飯島伸子(1986)『髮の社會史』日本評論社 p.78

大里恭三郎(1981)『石にひしがれた雑草』—仮面の復讐—
『作品論 有島武郎』 双文社 p.170~174

尾崎秀樹(1978)「モダン・ガール 時代のアンチ・テーゼ」
『國文學 解釋と教材の研究 日本のおんな—その内と外』學灯社 p.56

小坂晋(1979)「『石にひしがれた雑草』と『或る女』—主人公の精神構造と主題『有島武郎文學の心理的考察』 櫻風社 p.192~197

ジョン・バージャー(1991)「イメージWays of Seeing 視覚とメディア」·伊藤俊治譯, PARCO出版
局 p.8~10

本多秋五(1955)『「白樺」派の文學』講談社 p.177~178

湯本豪一(1998)『図説 幕末明治流行事典』 柏書房 p.120

渡辺凱一(1978)『石にひしがれた雑草』考『晩年の有島武郎』p.74~75

要 旨

「石にひしかれた雑草」には、「見る」男であるAと「見られる」女であるM子が出ています。M子はAに見られることによって解釈され評価される。AはM子を實體でない光景として見ているのではないか。

AはM子の態度、聲、表情、服装などを見ている。特に「石にひしかれた雑草」にM子の髪についての描寫が目につくが、これはAが見るM子の姿の一つである。まず匂いである。「半分腐ったような濃厚な匂い」と表現しているが、この匂いが「悪魔的に人間を誘惑する」という。この濃厚な匂いはAをM子へ導いた誘惑の匂いである。そして髪を切ったことについて考えてみた。女の象徴というべき髪を切るということは極限状況とか重大な決断とかを意味するものである。ところでM子は容赦もなく自分の眞黒な前髪を切ってしまった。Aは「艶美な亂暴」といい、「誰か一体この女を獨占するようになるのだろうか。あの髪を、あの後頸をおの女に似合わしい衣類を、而してその美しい着こなし方を」といっている。M子の外的な要素はほかならないM子自身であり、AはM子を他人が獨占することが堪えられない。最後に三年の外遊の後、AとM子の再會の場面。AにはやはりM子の髪が目にとまる。M子の髪型は日本鬻から束髪に変わっていた。Aは髪型を通してM子がすでに三年前の女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直感する。

Aが見ているのはM子の髪だけではない。Aは「眼が心を支配していた」と述懐する。彼が見るM子の姿がそのままAの心を支配す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Aの眼に見られるすべてがAによって再解釋され、M子に一種の畏のようになる。これは二つの紙切れ事件を通してわかる。

一つは、M子がAにデートを申し込んだ事件であった。ところでM子は始めに「N」が書いてある紙切れを投げることによって、Aに“N”を意味す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不安を感じさせる。ところでAが最後まですべての紙切れを合わせてみたときそれはデートの申し込みであった。Aは喜んだが、その後M子を見てM子の意図と心を読み取るため自分なりの解釋をするようになる。二つ目は、M子に出した加藤の手紙の切れの事件であった。Aは「落付か」の意味を想像しながら「嫉妬のオルガスムス」を感じて苦しむ。彼にはそれは単純な紙切れではなくM子であったからである。

Aが見るM子の姿はAを誘惑する強力な武器のようなもので、Aは脱げ出せないと感じる。しかしM子と加藤の裏切りはAの復讐をもたらしている。それは結局M子を繪の中の女にしてしまった。Aの嫉妬と想像によってまた巧みな計略によってM子は娼婦の姿に描かれ捨てられる。これは意思疎通のない光景として女を見たからであろう。

キーワード： 분다, 눈, 머리카락, 냄새, 자르다, 그림, 광경

투 고 : 2005. 11. 30

1차 심사 : 2005. 12. 10

2차 심사 : 2005. 12. 31

住 所 : (702-850) 대구시 북구 읍내동 1375-12 번지 2 층

電 話 : 053-324-1968/018-503-2780

e-mail : cherry1030@paran.com